

미분양 물량 증가·집값 하락에도 분양가는 고공행진

광주 3.3㎡당 평균 분양가 1667만원 전년비 11%↑...전국 평균 상회 원자재·인건비 상승...광주 상무센터럴 자이 등 분양가에 이목 집중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 왜 분양가는 갈수록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금 부담이 엄청 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광주지역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직장인 A(40)씨는 이달 분양을 시작하는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 지 관심이 크다고 했다.

A씨는 “주택 거래는 줄고 집값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집값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새 아파트 분양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 청약에 도전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연일 하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지만, 오히려 분양가는 천정부지 치솟고 있다. 이달 말부터 광주에 26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물량이 분양시장에 쏟아져나오는 등 오랜만에 ‘큰장’이 서면서 이들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023년 4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0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50만3000원이 오른 것이다.

또 3.3㎡(1평)로 환산하면 평균 분양가는 1667만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1.0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9.6% 오른 것을 감안하면, 광주는 전국 평균보다 1.46% 포인트 더 높아 타지역 대비 분양가 상승률이 가팔랐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의 ‘60㎡ 이하’ 아파트는 3.3㎡당 평균 1511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나 올랐다. ‘60㎡ 초과 85㎡ 이하’는 1643만4000원으로 8.5% 올랐고, ‘102㎡ 초과’도 188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광주지역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앞서 올해 2월 분양한 ‘광주 상무역 골드클래스’는 당시 191세대에 대한 1~2순위 일반 청약에서 43

건만 접수돼 경쟁률 0.23대 1을 기록해 흥행에 실패했다. 2600만원의 고분양가로 청약을 진행했다가 ‘쓴맛’을 봤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었다.

이처럼 부동산 경기침체에 고분양가 정책으로 분양 실패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레미콘 원료인 시멘트를 비롯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고급리 여파로 건설사의 금융 비용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역시 지난 3월부터 ㎡당 194만3000원으로 올랐고, 인건비도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부터 오랜만에 광주에 대규모 주택 물량이 청약 시장에 나온다. 분양가 상승

세 기류 속에서 이들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얼마나 될 지 이목이 쏠린다.

이날 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광주시 남구 월산 덕림데시앙(64가구)과 서구 쌍촌동 상무센터럴 자이(903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선다. 6월 2일에는 동구 계림동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461가구)가 일반분양에 나섰고, 이달 중 북구 운암동 그랑자이포레나(1192가구)도 청약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주택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무센터럴 자이의 분양가가 2600만원에서 28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에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 책정에 따라 분양 성적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세사기 책임 논란’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

민·관·학 TF 출범

잇따른 전세사기와 관련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중개업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TF에는 국토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플랫폼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TF는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

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 개혁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 보수를 노리고 강통전세 계약을 유도하거나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우수 인재 확보 나섰다

현대차, ‘넥스트젠’ 모집

31일까지 대학·대학원생 대상 여름·겨울 방학 기간 실습 참여

현대자동차는 18일 국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환형 인턴 프로그램 ‘넥스트젠(NextGen)’을 도입하고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넥스트젠은 지원자들이 여름, 겨울 방학기간을 활용해 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직무 중심 채용전환형 인턴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인턴 실습 기간 중 지원자가 적합한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며, 상반기와 하반기 총 2회에 걸쳐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연구개발 ▲생산·제조 ▲디자인 ▲사업·기획 ▲경영지원 등 5개 분야 14개 직무다.

지원자격은 2024년 2월 졸업 예정인 대학,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이며, 서류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선발된 인원은 7월부터 5주 동안의 실습 기간을 거치게 되고, 채용 전환 혜택이 부여된 우수 인원은 2024년 초 입사하게 된다.

넥스트젠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채용 홈페이지(talent.hyundai.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현대차는 넥스트젠 인턴 모집을 연 2회 실시하는 한편, 매 홀수 월 1일이던 신입 상시 채용 공고 시점을 3월, 6월, 9월, 12월 각 1일씩 4회로 개편해 우수 인재를 집중 선발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원자가 채용 시점을 예측하고 본인에게 맞는 직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턴, 신입 채용 제도를 개편했다”며, “특히 신규 도입한 인턴 프로그램으로 지원자들이 대학 생활 중에도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전기로 걱정 ‘뚝’ 삼성전자는 최근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신제품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4도어 제품 27종을 비롯해 3도어 제품 15종, 1도어 제품 11종, 뚜껑형 제품 17종 등 총 70종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중증장애인복지협회와 협약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사진 오른쪽)는 18일 (사)중증장애인복지협회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중증장애인복지협회와 지역사회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가정형편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협회 회원사 업체들이 장애인들의 각종 생산 물품들을 구매하는 등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정기섭 회장은 “협회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 기쁘

다”며 “지역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회원사들과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합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